



코로나19 사태가 식품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소매유통 및 식품 유통업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Green Street Advisors에 따르면, 미국 쇼핑물들의 면적에서 메이시스(Macy's), 노드스트롬(Nordstrom)과 같은 백화점들이 평균적으로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백화점들 중 50% 이상이 내년 말까지 영구 폐점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요식업계의 경우 각 주 정부들의 영업제한조치로 인해 유명 식당 체인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외식업체 르 팡 코티디앵(Le Pain Quotidien)의 미국 본사는 지난 5월에 Chapter11 파산 신청을 하였고, 캘리포니아 지역의 인기 샐러드 뷔페식당 체인인 수플랜테이션 앤 스위트마토스(Souplantation & Sweet Tomatoes)의 모회사인 가든 프레시 코프(Garden Fresh Corp)는 지난 5월에 Chapter7 파산을 신청하였다. 로간스 로드하우스(Logan's Roadhouse) 이외 다수의 식당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크래프트웍스(Craftworks)는 지난 3월에 Chapter11 파산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한 때 미국 전역에 230개의 지점을 운영하던 로간스 로드하우스는 무기한 영업 중지에 들어갔다. 또한 피자헛(Pizza Hut)과 웬디스(Wendy's)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프랜차이즈 업체 중 하나인 NPC International Inc가 7월 초에 Chapter11 파산 신청을 하였으며 처키치즈(Chuck E. Cheese's)의 모회사인 CEC Entertainment Inc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중지 조치를 버티지 못하고 Chapter11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다.

식료품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업체 및 농가들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따른 인력 감소 문제와 운영제한조치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전관리규정 운영에 따른 공장 가동 프로세스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내 식료품의 주요 운송 루트인 트럭 운송 및 수입품의 해상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식료품의 수급 및 운송 병목 현상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대한 사실과 상반되는 희망적인 통계조사 결과가 또한 발표되었다. 요식업체의 운영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크런치타임(Crunchtime)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레스토랑 매출이 소폭으로 반등하였으며(지난 3월 대비, 7월 첫째 주 전체 레스토랑 산업의 매출은 35%, 7월 둘째 주 매출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패스트푸드 식당 매출은 거의 정상화된 것(quick-service 레스토랑의 경우, 지난 3월 대비 7월 둘째 주의 매출은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나타났다. 팩테우스(Facteus)의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매출은 그 전주에 비하여 5%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식당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여전히 소비자들은 식당 안에서의 식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 CARES Act(경기부양책)가 통과된 이후에 추가 실업보험 혜택이 제공되면서 레스토랑들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었으나, 추가 실업보험의 혜택은 2020년 7월 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레스토랑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소매 식료품점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오히려 증가한 매출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로 모니터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비알콜 음료들은 2020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조림, 냉동식품 등의 매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캠벨스프, 크래프트 하인즈 등

의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유기농 등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팬트리에 식료품을 채우고 이를 집에서 요리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해당 식료품들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등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따른 업계 동향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Key Point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식료품업계 및 외식업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진행될 대유행 종식 시나리오 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 가처분소득의 감소, 일부 식료품 가격의 이례적인 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식품업계의 상황이 민감하게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주의를 기울여 변화하는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❶ 11 Major Restaurant Chains That Have Filed for Bankruptcy - <https://www.eatthis.com/restaurants-file-bankruptcy-coronavirus/> ❷ FAST-FOOD RESTAURANT SALES RETURN TO NORMAL - <https://www.restaurantbusinessonline.com/financing/fast-food-restaurant-sales-return-normal> ❸ Over 50% of department stores in malls predicted to close by 2021, real estate services firm says - <https://www.cnn.com/2020/04/29/50percent-of-all-these-malls-forecast-to-close-by-2021-green-street-advisors-says.html> ❹ Food and beverage is the only sector projected to grow this year, report says - <https://www.fooddivve.com/news/food-and-beverage-is-the-only-sector-projected-to-grow-this-year-report-sa/578930/> ❺ Coronavirus is boosting sales for center store products. Will the renewed interest last? - <https://www.fooddivve.com/news/coronavirus-is-boosting-sales-for-center-store-products-will-the-renewed-interest-last-577842/>